

<대구사진사시리즈2 전시서문>

-김태욱

I

디지털 시대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에서 현재는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기술로 산업의 중심이 가파르게 이동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일상적인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우리 삶에 급격한 변화를 주며 새로운 가치와 통념의 수정을 요청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여파는 사진술에도 영향을 끼쳐, 21세기에 접어들면 필름에서 디지털로 이미지의 저장방식이 완전히 대체되어 대중들에게 파급된다. 디지털 문화의 확산은 인간이 만들어 낸 다양한 도구 기능들과 함께, 카메라 기능도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판한 스마트폰 체제로 편입돼 디지털플랫폼을 탄생시키고, 관련한 각종 경제 담론을 형성하며 진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와 같은 최첨단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한 국가 중의 하나이고, 이 시스템의 출발은 1960년대부터 한국의 사회경제가 이룩한 성장의 수혜에 직결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으로, 한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냉전체제 아래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치열한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겪게 되고, 그 후유증은 한국인의 정신적 피해와 대부분 국토가 파괴되는 물질적 피해를 남겼다. 대구의 지역민과 몰려든 피난민은 잔존(殘存)한 경제 시설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실존적 삶을 돌봐야 했다. 그런 사회경제적 현실에서 시각예술의 한 분야인 사진은 종군(從軍) 경험과 미군에서 유입된 포토저널리즘, 다큐멘터리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사진미학과 결별하고자 하는 구왕삼(具王三, 1905~1977)은 리얼리즘사진운동을 195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개한다. 전쟁과 이 사진운동의 영향으로 대구사진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살롱사진 미학에서 차츰 벗어나 1960년대에 이르면, 창작과 표현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며 '진취적 사진문화'를 그려냈다.

II

전쟁의 대참화로 무너진 한국사회는 1960년대에 이르면 나아갈 선택지를 확정한다. 그것은 '과거로의 재건'이 아닌 '새마을 건설'이다. 이 시기부터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성장을 통해 매 10년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변혁의 시간이 도래하였었다. 그리고 1960년대 대구사진계는 전쟁 이후 등장한 리얼리즘 사진운동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현실의 풍경을 내면화하여 사진표현에 담아낸다. 또한 사진창작과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풍성함이 부족해도 세계의 주된 사진 흐름에 동시대적으로 연동되는 혁신을 가져왔다. 1960년대에 이르러 과거의 미적 경향을 극복하고 사진의 본질적 속성에 다가가고자 수용한 리얼리즘사진 장르는 초기의 모방에서 벗어나 발전된 이론과 창작으로 '자생적 리얼리즘사진'에 수렴되던 시기였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은 그러한 일련의 시대 흐름과 사진사(寫眞史)의 배경 속에 사진작가들이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들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가는 배상하(裴相河, 1922~1965), 신현국(申鉉國,

1924~1997), 권정호(權正浩, 1939~), 김일창(金一昌, 1940~), 장진필(張振弼, 1936~)이다. 개별 작가들의 사진에의 입문과 활약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동시대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나온다. 시대를 기록하고 표현한 동일성을 갖지만, 이들 작가는 일반적으로 사진이 유포되는 전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 준거점은 사진의 기능적 수행에서 저널리즘과 작품발표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작가는 배상하와 신현국이다. 이들은 매일신문에서 사진기자로 활약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작업과 성향을 개척한 사진가이며 당대의 현실적 외관에서 인간의 존엄과 보편성을 놓치지 않으려 고뇌한 작가이다. 배상하는 빈한한 시대적 외형이 가득한 대상에 직접적으로 파고들면서도 시각적 진실의 중량감을 가득 담았다. 그런 가운데 인간에 대한 존중과 유머, 사회적 환경 속의 생활상은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운 현대성으로 투영되어 있다. 신현국은 삶 속의 리얼리티에 집중한 관찰력으로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일궈지는 당시의 현장을 올곧게 반영한다. 특히 전쟁 후의 사회적 현실의 토양 위에서 형성된 질박한 서민들의 삶과 모습을 박력있게 단순한 구성으로 기록하는 사진의 속성을 보여준다. 권정호는 저널리즘에 기반하여 국가와 대구의 맥관(脈管)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현장과 그것을 둘러싼 사건, 당시의 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혼미(昏迷)한 삶의 기본 요건을 위트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역동적 위세를 그는 자신만의 가늠자로 기록하고 있다. 장진필과 김일창 두 작가는 창작과 작품발표의 영역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전한다. 장진필은 숙련된 화가에서 도전적인 자세로 자신의 창작 도구에 변화를 주면서 미적 보금자리를 찾기 이전의 사진들이 이번에 소개된다. 그 탐색의 과정에 안착한 사진들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회화의 흐름을 바꾸는 사진 표현법이 등장하고, 이 작품들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변화 속도를 이미지로 감응한 사진들이다. 김일창의 사진 작업들도 앞의 작가들과 유사하나 소재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의 사진들은 서민들의 생활 도구와 경제활동에 혹독한 환경이 배경으로 등장함으로써 당시 민초(民草)의 삶에 수반된 중압감을 담아낸다. 그 결과 경제개발을 통해 촉진되는 시대적 자원의 흐름과 분배에서 소외되는 교외(郊外)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기획전시의 균형추를 담당한다.

III

이미지의 물질적 기반이었던 필름에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로 전환한 현재의 사진제작 시스템은 사진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의 예로, 디지털 방식은 기존의 사진술보다 난이도에서 훨씬 간편한 응용 소프트웨어(App)를 활용하지만, 사진표현에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더욱 부각(浮刻)시켰다. 또한 최근의 NFT(Non-Fungible Token) 전시 방식은 사진술의 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代案)으로 등장해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에서 거세게 확장되고 있다. 현실과 비현실에서 사진이미지 창작과 거래의 패러다임 모두를 바꿔 가는 현상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우리가 겪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를 거치며 다채롭게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고 있다.

디지털의 힘을 빌려 전시된 사진이 등장했던 시기와 비교 불가한 디지털아트 시대에 이르러, 지역의 사진 전통을 떠받친 기둥들은 점차 약화(弱化)되고 토대를 상실하여 가고 있다. 디지털 사진 도입에 그 어느 곳보다 앞선 역량을 보였던 지역 사진계는 추동력을 상실한 원인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 중

심의 기획 사진들은 역설적으로 크고 거대한 전환기에 깊은 인문적 통찰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사진의 체용(體用)에 따라 실존을 직시하고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작업과 동시대 활약한 사진가들의 향배는 지역의 사진발전과 함께 세계로 연결되었고, 사진창작에의 신명(神明)은 후대로 이어져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산업경제 체제 아래 출발한 사진술은 산업문명과 디지털문명의 갈등 속에서 숙명적으로 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디지털 산업과 문화 속에서 진화하는 테크놀러지, 그것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기능으로 형성된 플랫폼 안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던 사진술과 이미지는 다양한 콘텐츠 영역의 기초와 창작의 도구로 누구나 소비자(生費者, prosumer)가 되도록 전환되었다.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보편성과 일반성을 득하며 신명으로 응답하는 모양새다. 그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으로 기술의 진보를 수용하고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씩씩한 노력과 결합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19세기 사진술이 등장할 때 이를 맞이한 시각 예술가들,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 기존의 사진미학을 넘으려 창작열에 몰두한 사진가들, 21세기 디지털 문명 아래 노출된 사진의 위치가 오버랩(overlap)되는 시대적 연결망은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힘을 보탠다.

Exhibition Preface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volution triggered by computers and the internet that heralded the digital era in the 1980s is now shifting to the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mainly driven by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ternet of things (IoT) at an accelerated speed.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a dramatic transition from offline to online and has introduced a contactless form of life, radically changing our daily lives and prompting a revisit to the established values and conventions. Digital technology has also impacted photography. Coming into the 21st century, digital images completely replaced film as a means of storage and the general public also embraced this change. The digital culture, supported by a diverse array of human-made tool functionalities, further spread into the smartphone system that even incorporated camera as one of its app icons and resulted in the birth of digital platforms, continuously evolving with various economic discourse formed on its tangent. Today, Korea is a country that has successfully built such a cutting-edge digital system. The genesis of the system is directly related to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that Korea has achieved since the 1960s.

The defeat of colonial Japan in World War II freed Korea from colonial rule. However, the fierce competition to establish a new social system under the Cold War regime ultimately resulted in the Korean War. The aftermaths of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bo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umatic mental damage experienced by the Korean people and an entire country left with nothing but the rubbles of war. In Daegu, the locals and war refugees had to continue with their existential lives based on what little economy remained. Amid such socio-economic reality, photography, a genre of visual art, embraced the experience of war and the inflow of photojournalism and documentaries from the U.S. Gu Wangsam (1905-1977) who attempted to separate from aesthetic photography of the past, initiated the realism movement in Korea in photography from the mid-1950s. The war and the realism movement triggered Daegu's photographic scene to gradually move away from the aesthetics of salon photograph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depict a "forward-looking photographic culture" by clearly differentiating itself in creation and expression.

In the 1960s, war-ridden Korea set the vision for its way forward. The

way forward was not "rebuilding the past." It was to "construct a new village." From this point onwards, Korea experienced a time of tumultuous change as the government-induced economic growth peaked every decade. Against this backdrop, photographers of Daegu in the 1960s internalized the rapidly changing landscape of the social reality triggered by the post-war realism movement and expressed it in photography. This ushered in an innovation where the Daegu photographers joined the global contemporary trend in photography, albeit the shortfall in the volume of works and creative spectrum. Furthermore, they adopted realism to unhinge themselves from the aesthetics of the past in their attempts to zero in on the essence of photography. This genre then started to move beyond the early emulating stage and came to establish itself as "autogenous realism" thanks to the advanced theories and abundant creations.

The photos that are presented in the exhibition are images taken by photographers with their cameras against such national backdrop and photographic history. The artists featured in the exhibition, namely Bae Sangha (1922-1965), Shin Hyunkook (1924-1997), Kwon Jeongho (1939-), Kim Ilchang (1940-) and Chang Jinpil (1936-) were active in different periods; however, they share a common theme in that all of them expressed the contemporary time in their own way. While they are alike in that they expressed the same era, they are distinguished in the general distribution process of photography. The reference points are journalism and the presentation of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 execution of photos. Bae Sangha and Shin Hyunkook were photographers that executed both. Even before becoming photojournalists of Maeil Shinmun, the two were pioneering photographers who refined the unique quality of their work. They were, at the same time, artists who anguished not to overlook the human dignity and universality in the framework of reality. Bae Sangha directly dived into the subjects with indigent exteriors of the era while carrying the full weight of the visual truth. In addition, respect for humans, humor and life amid the social environment reflects modernity full of humanity. Shin Hyunkook right-mindedly reflected the frontlines of the time impact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based on observations of everyday life. The artist depicted the desperate lives and looks of the working class built on the post-war foundation of social reality with energy and drive by using the attribute of photography that record in simple composition. Kwon Jeongho based himself in journalism and used wit to illustrate the forefront of rebuilding the bloodline infrastructure of the nation as well as Daegu, the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process, and the basic elements of life that were confused for the sake of development. The dynamic power of men, women, young and old is recorded from the unique backsight view of the artist. Chang Jinpil and Kim Ilchang conveyed the atmosphere of the time in the areas of creation and presentation. The photographs of Chang Jinpil introduced in the exhibition represent Chang before finding his aesthetic home after he transformed himself from a skilled painter to a photographer by experimenting with the new creative tool. In the photos that took root in the process of such exploration emerged the photographic techniques that changed the flow of painting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se photographs are the visual rendition of the economic growth and speed of change in the late 60s and early 70s. The work of Kim Ilchang is similar to the previous artists but different in the subject matter. His photographs capture the pressure weighing on the ordinary people by putting their everyday utensils and economic activities in front of a harsh environment. In result, his work serves as a balancing weight of the special exhibition in that his photos portray the life-as-i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outskirts who were excluded from the flow of resources trigger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era.

The special exhibition directly and indirectly displays "sorrow" and "humor and satire" along with the socio-economic landscape of the post-war Korea manifested in the historic voyage toward the "construction of a new village," which was primed by the national capital and championed by Korean society as a whole. At the same time, these photographs go beyond "nostalgia." They guide the eyes of the audience to the systems and life of today by sharing and reminding us of the historical existence of the new village interwoven with the past, as they capture the moments of social change, social testimony and daily drama.

The current photo production system that transitioned from physical film to data-based digital form had an extensive impact on the overall photographic culture. For example, digital photography uses simple apps to shoot photos, making it technically easier while putting higher emphasis on the novelty of ideas and creativity of photographic expression. Meanwhile, the NFT (Non-Fungible Tokens) exhibition method has recently emerged as a solution to solve the issue of counterfeits and is quickly gaining traction on the metaverse platform. It is the emergence of a phenomenon that can completely change the

paradigm of production and transaction of photography in reality and unreality. Such socio-cultural phenomenon is refreshing anew every day as the entire world undergoes digital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an unprecedented pandemic.

As we enter the age of digital art that is incomparable to the time when photos borrowed the power of digital to be displayed in exhibitions, the pillars that supported regional photographic traditions are weakening and their foundation is being impaired. There is a need for the regional photographic scene who led the introduction of digital photography to look back on the reason for losing drive. Ironically, the special exhibition of photographs taken in the 1960s indirectly evidences the need for a deep humanistic insight during a colossal transitional period. This is because the photographic work, that confronts the very existence based on the essence and application of photography and conveys the faces of humans, and the voyage of contemporary photographers are linked to the worl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 photography, and the excitement of photographic creation is still valid as it has been passed down to the future generations.

Photography originated from the capitalistic industrial economy. Though conflicted between industrial and digital civilizations, photography is destined to rely on the latter. Photographic techniques and images, which existed in an independent arena within the platform created by smartphones equipped with technology and functions that continue to evolve in the digital industry and culture, have transitioned to enable anyone and everyone to become prosumers by serving as a foundation and becoming the creative tool for a diverse array of content genres. It is as if Korean culture is responding with excitement after acquiring universality and generality around the world. This is a new standard conceived by the era and is the result of accep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ombining incessant effort with novel ideas and creativity. In this regard, the visual artists who welcomed the emergence of photography in the 19th century, the photographers who worked relentlessly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aesthetics of photography in the industrial era of the 1960s, and the contemporary network overlapping with photography that is exposed to the 21st century digital civilization are all propelling the discovery of a breakthrough in reality.